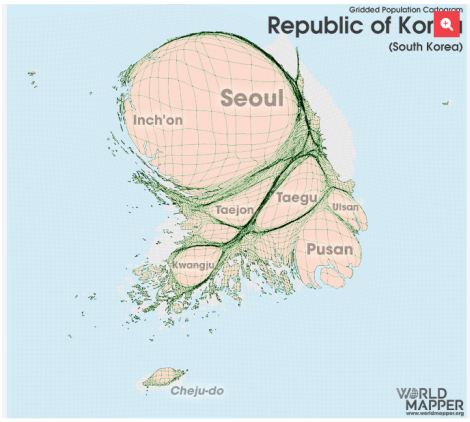
11월 아홉번째 교리 "세계적 불평등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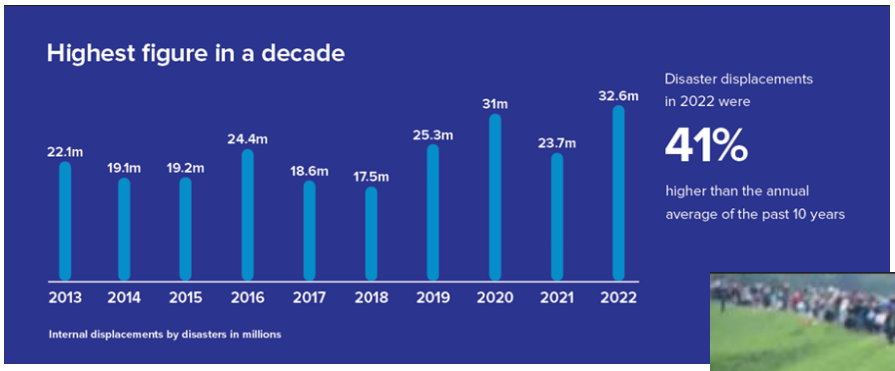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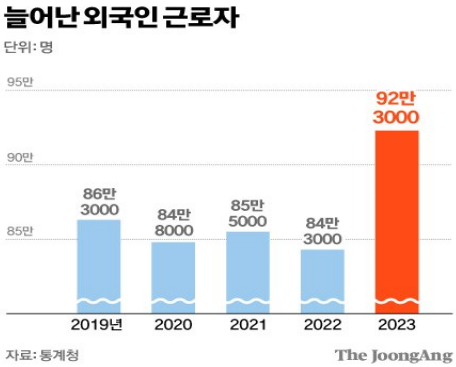
교 리 시 간　순 서 (40분 ~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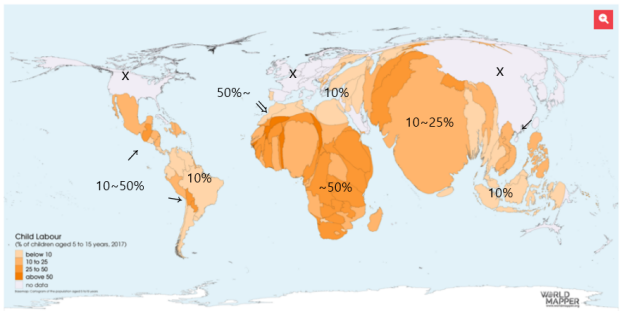
⊠	순서	소요시간	교 리　내 용
1	시작기도	1분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문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을 위한 부분을 시작기도로 바친다.
2	출석확인	1분	출결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하며 교리를 시작한다.
3	경험	10분	우리 나라가 겪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세계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메시지	6분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는 난민과 노동자가 있음을 알고 기후 위기가 생태 위기, 식량 위기로 이어짐을 이해한다.
	깨달음	10분	기후 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임을 깨닫는다.
	응답	10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메세지를 읽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답편지를 쓴다.
4	공지 사항	1분	다음 교리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함께 기억하거나 기도해 주어야 할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5	마침기도	1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특별히 취약한 아동들을 맡겨드리며 정성을 다해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호경을 바친다.

교 리 지 도 계 획 안

	제 9 과 세 계 적 불 평 등 이야기
학습 목표	*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 세계적인 불평등 현상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로 난민이 되거나 이주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장 취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깨달을 수 있다. * 교황님께 편지를 쓰면서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수법	1단계 : 경험 - 세계적 불평등 현상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문 중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을 위한 부분을 시작기도로 바친다. -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 지도를 통해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 나눈다. - 회칙 48항을 한 사람이 한 문장씩 읽으며 세계적 불평등 현상을 인식한다. 2단계 : 메시지 - 기후 위기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나요? - 기후 변화로 난민이 된 사람들, 이주노동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본다. - 회칙 25항을 한 사람이 한 문장씩 읽으며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3단계 : 깨달음 - 예수님도 난민 어린이들처럼! (마태 2,13-18 참조) - 기후 환경 도서를 읽고 아동 노동의 폐해에 알아본다. - 교황님의 메세지를 읽고 하느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한다. 4단계 : 응답 - 하느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어린이들! (마태 25,40 참조) -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사랑의 행위가 곧 예수님께 한 사랑의 행위임을 알게 한다. - 나와 같은 어린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학대받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교황님께 답편지를 쓴다.
기대 행동	1.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안타까워 할 수 있다. 2. 세계적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고 안타까워 할 수 있다. 3. 아동 학대의 폐해에 관한 교황님의 호소가 담긴 메시지를 읽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수 있다. 4. 가장 힘없고 취약한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5. 아동의 권리를 생각하며 교황님께 진심어린 답편지를 쓸 수 있다.
준비물	대한민국 인구 분포 지도, 회칙『찬미받으소서』, 공책과 연필, 질문상자와 메모지 기후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 추천 도서 〈기후 미식〉, 아동 노동 ppt 교황님의 교리 교육(1)-2025. 1. 8, 교황님의 교리 교육(2)-2025. 2. 15, 편지지와 필기도구
사전 준비	관련 영상 자료 ppt 준비 공책과 연필, 편지지 등 인원수만큼 학생들에게 배부 준비

경험	소제목	**세계적 불평등 현상**	소요시간	10분
	교리 목표	1. 지도 읽기를 통해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2. 회칙『찬미받으소서』통독을 통해 세계적인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교수법	지도 읽기와 회칙 통독		
	준비물	대한민국 인구 분포 지도, 회칙 『찬미받으소서』, 공책과 연필, 질문상자와 메모지		
	교리 내용	**1. 시작기도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문 중에서 (1분)** †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 **2.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 지도 - A Digital Frontier (4분)** 이 그림을 한 번 봅시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나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네요. 더 작은 지명도 읽어볼게요. 대전, 광주, 울산, 제주도입니다. 하나같이 대도시이거나 관광지로 유명한 곳임을 알 수있어요. 우리 나라 지도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많이 다르지요? 하지만, 여기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쓰여있고, worldmapper에서 제공한 사진이니 우리나라 지도가 맞겠죠!  이 지도는 단순히 도시의 넓이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왜일까요? 서울이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답하게 유도한 후)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산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도 가장 많이 있겠죠! 그러니 집, 학교, 학원, 회사, 병원,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은행...이런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서 소득수준도 가장 높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 주유소도 많고 대기오염도 심하죠. 생활용품과 음식물의 소비도 많으니 폐기물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전기, 물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자원 역시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기회적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있듯이, 부자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없는 나라가 있지요.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져도 큰 피해가 없는 곳이 있는 반면에 하루만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곳도 있고 해수면이 높아져 국토가 물에 잠겨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나라 사람들도 많아요. **4. 회칙 통독 : 세계적 불평등 현상 (5분)**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어 선진국,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지금의 기후 위기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받고 고통당하는 현실이 정말 이상하지요? 교황님께서도 오늘 날의 이러한 모순된 현상을 "세계적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48항 (p41)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봅시다. ○○○ 부터 한 문장씩 읽기를 시작해볼까요? (모두 다 읽은 후) 이제는 나에게 가장 인상깊은 문장이나 단어에 줄을 그어봅시다.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좀 있지요? 그런 단어들이나 이해가 잘 안가는 문장들을 적어서 앞에 놓인 질문상자에 넣어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최대한 도움말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메	소제목	**기후 위기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나요?**	소요시간	6분
	교리 목표	1. 기후 위기로 난민이 되거나 이주노동자가 된 사람들을 알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2. 회칙을 통해 교황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우리 이웃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수법	관련 자료 설명 및 회칙 통독		
	준비물	기후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 회칙『찬미받으소서』		
교 리 시 내 용 지		**1. 기후 난민과 생태 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 (4분)** 여러분, 기후 난민 또는 환경 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후 변화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이나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해요.  세계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난민의 수가 2022년에 3천 2백 6십만 명, 2050년이면 1억 43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기후 난민으로 **시리아 난민**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시리아는 원래 토양이 아주 비옥한 지역인데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도시로 몰려들었고, 인구 포화상태가 된 도시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겨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어요. 살기 힘들어지니까 무려 388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이주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바로 **시리아 난민**이라고 해요. 전쟁 난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 번 봅시다. 이 사람은 과연 앞으로도 계속 고향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로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85만 여명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8만 여명이나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 파괴나 이상 기후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문제, 생존과 연결된 문제, 세계 평화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 회칙 통독 (2분)** 하나의 위기는 다른 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25항을 돌아가며 읽어봅시다.		

깨	소제목	**예수님도 난민 어린이들처럼! (마태 2,13-18 참조)**	소요시간	10분
	교리 목표	1. 기후 환경 도서를 읽고 아동 노동의 폐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2. 교황님의 교리 내용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법	도서 추천과 자료 제공,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교육 내용 전달		
	준비물	추천 도서, 아동 노동 ppt, 교황님의 교리 교육(1) 내용(2025. 1. 8 수요 알현) www.vaticannews.va		
교 리 달 내 용 음		**1. 전 세계 아동의 절반이 위험하다 - 유엔아동기금 사진 자료 (5분)** 여러분에게 기후 환경 도서를 한 권 소개할게요. 책을 쓰신 분의 직업이 독특해요. 잘 들어보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 감이 오나요? 뭔가 환경과 우리의 생활습관이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나도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보았는데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전 세계 아동의 절반이 위험하다} 는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박탈당하는 미래 세대의 탄소 예산}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책의 43쪽과 44쪽을 참고하면,   < 5-14세 어린이의 노동 2019 / UNICEF data > 2021년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발표한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 22억 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명의 아동이,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33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다음 지도를 보세요.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공부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이인데 이 지역의 아동은 벌써 노동 착취와 학대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이거나 형제자매의 나이인데 참 안타까워요! (색의 농도가 그 지역에 속한 아동 중에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임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2. 하느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이들(1)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 중에서 (5분)** 교황님께서 **25년 1월 8일**에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화성이나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아픈 눈빛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다른 행성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연구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모욕당하고 착취당하며 죽음에 이르도록 상처를 받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전쟁터에서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폭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헤로데왕은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라 명했고, 이는 예수님께도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는 시대와 장소만 달리한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 난민 어린이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와 은총도 함께 자라나며(루카 2,52 참조), 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청합시다. 고맙습니다."		

응답	소제목	**하느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어린이들! (마태 25,40 참조)**	소요시간	10분
	교리 목표	1. 교황님의 교리내용으로 가장 작은 형제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해드린 것임을 알 수 있다. 2. 교황님께 편지를 쓰면서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다.		
	교수법	교황님의 교리 교육 내용 전달 및 편지쓰기		
	준비물	편지지와 필기도구, 교황님의 교리 교육(2) 내용(2025. 1. 15 수요 알현) www.vaticannews.va		
	교리 내용	**1. 하느님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이들(2)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 중에서 (5분)** 이번에는 **25년 1월 15일**에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품어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수억 명의 어린이들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직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하느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죄입니다. 학대받는 어린이들 곁에서 그들을 보듬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평화롭게 자랄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헌신하는 이들과 신뢰를 쌓고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미의 한 나라에서는 블루베리와 비슷한 '아란디노'라는 특별한 열매가 있는데 수확할 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동원합니다. 어린이들을 노예처럼 부려 수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도시에서는 마약 거래와 온갖 불법 행위에 어린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양이 되어 스러져가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제 조국 아르헨티나에서도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로안이라는 소년이 납치된 뒤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장기 매매를 위해 데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술 자국을 안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안이라는 소년을 특별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어린이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사회적 불의를 마주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어린이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남녀를 당신의 아들딸로 사랑하시듯, 특별히 어린이들을 한없는 자비로 품어 안으십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에, 교육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아동 노동을 근절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받는 아동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한다면, 이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제품의 생산과정을 살피는 것이 바로 아동 학대같은 해악에 동참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 각자의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두려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수많은 노예가 된 아동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약한 이들의 행복이 모든 이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2.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5분)** -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교황님께 편지를 써봅시다. **3. 마침기도** - 성호경		